

GOOD NEIGHBOR MINISTRY

Vol. 103 / January ~ March, 2018



www.goodneighbornj.org

용 기

2015년 1월 초에 저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바로 김명신 권사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후 15년 넘게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선교사역을 해왔던 신앙의 대선배이자 멘토였던 김명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리도 다급히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아닌 권사님의 위암 4기 진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함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으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눴던 권사님이 위암에 걸리셨다는 말을 저는 정말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봉사자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 주셨던 그분이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는 선교회를 정준임씨가 맡아서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아요!”

15년 넘게 양로원 찬양 봉사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저는 권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철이 없었던 저를 아껴주셨고, 항상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농담처럼 제게 언젠가 권사님께서 은퇴할 때가 되면 선교회는 제가 맡아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권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웃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제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권사님! 그리고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로의 말로 위장하고 권사님의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권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았지만 피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믿음의 단체인 선교회를 이끌어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김명신 권사님을 신앙의 멘토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권사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매달렸고 선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권사님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희 모든 봉사자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권사님의 수술 당일 오전, 한참 수술을 받고 있을 시간에 권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저 김명신이에요!” 흐릿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힘 있고 당당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위 부위를 열어보니 암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서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 의사가 다시 닫았어요!” 권사님은 아직 마취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음성으로 “선한 이웃 선교회를 맡아줘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고 아직 마취에

서 채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권사님은 주님께서 맡긴 선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전화 대화 중 마치 성경 말씀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라는 기도 대신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세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권사님! 선한 이웃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을 이렇게 혼자 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명신 권사님과 이별한 지도 어느새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이 지금도 저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진실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이 부족하지만, 저의 발걸음은 매일 양로원으로 향합니다. 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부족하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주시며 믿음의 용사로 한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봉사자 모두가 매일 용기를 내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귀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올 한해도 선한 이웃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아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이사야 41:10)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널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널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역’입니다.

Coming Events

6/16/2018(토) 7:30 PM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양로원 사역이 나에게 준 교훈

선한 이웃 선교회를 통해 양로원 봉사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봉사 사역은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중 한 가지는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배우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저 자신이 시간 위에서 서 있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해가 갈수록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보조기구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찬양곡 페이지를 잘 찾지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페이지를 넘길 힘조차 없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몇십 년 후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위에서 서 있는 저 역시 몇십 년 후에는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로원 안에 계신 분들의 인생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미남, 미녀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환경에서 사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자니 윤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이고 쇼 프로 진행자였던 그가 미국의 한 양로원에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 인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양로원에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적인 양로원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은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봅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손해는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핵을 가져야만 자국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핵무장으로 온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이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 볼 것은 생각지 않고 움직이는 기업의 모습도 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에도 번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오자 봇물 터지듯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사회적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상대는 생각지 않고 쾌락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양로원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몇 달 전 양로원에 성악가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몇 곡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한 노래를 불렀을 때 특별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무시던 분들도 일어났습니다. 표정 없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정서가 깨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다시 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비슷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곡을 부를 때보다 노랫소리가 두 배쯤은 더 커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릇의 정의

세상 그릇은 깨지면 칼날이 되지만
하나님 그릇은 깨지면 사람을 품는다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 버리지만
주님은 깨지고 깨져야
그릇이라 사용하신다

담을 수 없는 것은 그릇이 아니다
가난한 심령에 사랑을 담듯
상처 난 자리에 용서를 담듯
순전한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깨진 것들은 아름답다
바위에 깨진 물이 시냇물이 되듯
바람에 깨진 봉우리가 꽃이 되듯
깨진 것들은 향기가 된다

미움이 깨지면 사랑이 된다
슬픔이 깨지면 기쁨이 된다
환란이 깨지면 예배가 된다

세상은 깨진 그릇이라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지고 깨진 그릇을
들어 쓰신다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눈물로 나를 빚으시고 오늘도
내 편편한 영혼에 우물을 파시는
나의 하나님

김 은자 권사/시인

양로원의 어르신들은 저의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지나간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정서와 영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지가 우리를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삶을 즐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움을 주는 양로원 사역이 늘 즐겁습니다.

송재현 목사
뉴저지 주사랑 교회
Sunrise of Old Tappan

Christmas: The Making of Music & Memories

Upon entering the wide room highlighted with festive Holiday decorations and aroma of scrumptious food, my first impression was that this performance would be far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e freezing weather seemed like a distant memory after seeing the eyes of the eager kids yearning to finally hear some Christmas melodies. Frantically opening our music cases and flipping through our music, we set up our stands to play what everyone was waiting to hear!

One of the many reasons I love playing in an orchestra is how we can communicate through our music. It doesn't matter one's background, language, or culture. It's a method of expression to show that we care, want to share, and hopefully inspire. During the performance, I occasionally glanced around the room. Our audience especially the children had expressions of wonder like Santa Claus himself was playing amongst us. I heard conductor's wise words in my head: "Some of these kids have never seen an instrument in real life before; play like this is your last performance." Their gleeful expressions and appreciative smiles encouraged all of us to play in harmony. Surrounded by bobbing heads all around us, we were fueled by their energy and had one of our best performances!

After completing our last piece, we were approached by many of the kids and their family members thanking us for the performance and how beautifully we played. They reminded us that we were doing "God's work" and that we should "continue spreading our love."

The GNE trip to Pennsylvania not only allowed all of us to experience the joy of sharing and spreading our message, but also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what we do. By merely playing our instruments together, we're capable of adding a bit of enjoyment to people's lives which is even more rewarding for us. An orches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of uniting people, and our ensemble is no exception!

Jodie Suh/Good Neighbor Ensemble
Ridgewood High School/11th Gr.



Philadelphia North Central 지역 봉사를 다녀와서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에 GNE가 초청을 받아 연주 봉사를 조금 멀리까지 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검색만 하면 바로 뜰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라고 알려진 필라델피아 North Central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되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가난하고 학교를 가지고 않고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으면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마약과 강도, 살인 사건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끔찍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이웃 삼아 오랜 시간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그 지역 연말 행사에 초청해 주신 이태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렸던 눈 때문에 타운의 모습이 많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보는 빈민가의 모습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은 어느 하나도 멀쩡한 것들이 없었고,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막아 놓은 현관들과 전혀 돌보지 않은 집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들, 그나마 몇 안 되는 허름한 가게들은 창살로 아예 가려놓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눈도 오고 길이 좁아 어렵게 찾아간 어느 교회의 체육관 안은 이미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테이블 세팅과 음식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고 이를 시간부터 준비했을 봉사자들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짧은 리허설을 하고 연주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식사 초청을 받은 그곳 이웃들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준비한 곡을 무사히 연주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은 초청 받아 오신 분들을 진정시키고 에티켓을 이야기 하느라 분주했고, 자연히 같이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연주를 가장 열심히 들어 주시는 상황이 되어버린 참 당황스러운 연주를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 연주였지만 그 분들을 위함이었고 연주를 위해 지휘자님과 단장님, 부모님, 단원들이 노력했고 멀미까지 참아며 멀리까지 갔던 장거리 연주였는데... 그 연주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순간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는 단원들과 지휘자님, 단장님, 부모님들을 향해 이태후 목사님께서 짧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악기 구경을 해보고,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이곳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있는 나에게 뛰어 다가와 "이게 뭐야?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만지개 해 줘!"라고 신기한 듯 팔짝팔짝 뛰며 얘기했던 꼬마 여자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주를 통해서 그곳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싶었던 것, 오늘 연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GNE가 매년 연말파티 연주를 하게 될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악을 통해 바꿔어질 그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과 나눔으로 그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전히 그곳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실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주 언/Good Neighbor Ensemble
Tenafly High School/10th Gr.



Oradell Health Care Center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Buckingham at Norwood(1st Fl.)



Sunrise of Old Tappan



New Bridge Medical Center Psych Unit



신년

Photo C



신년예배



Buckingham at Norwood (1st Fl.)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CareOne at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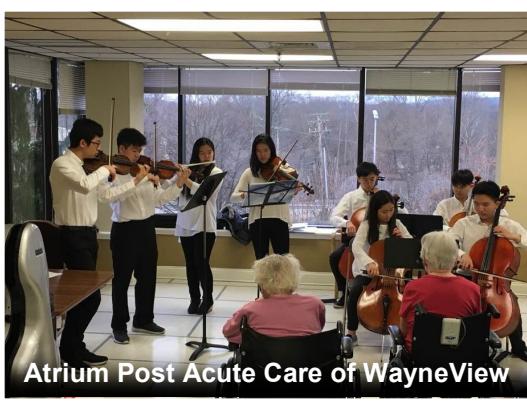
예배



Buckingham at Norwood (1st Fl.)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Sunrise of Cresskill

Gallery



예배



Philadelphia North Central 성탄 연주



Cupola, Paramus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New Bridge Medical Center Psych Unit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고난 당하셨던 그 고통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정하곤 한다. 난 이 때가 오면 늘 떠 오르는 짧은 영화가 있다. 오래 전에 찬양집회에서 보았는데 큰 감동으로 남아 지금도 느낌이 생생하다. 그 영화를 보고 며칠간 잠을 설칠 정도였다. 정말 아버지의 그 애절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영화 제목은 ‘The Bridge’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직업은 도개교 (draw bridge) 기사였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작업장에 함께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낚시하며 놀고 있었다. 작은 배가 하나 지나가고 아버지는 다리를 열어 주었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예정시간보다 훨씬 일찍 기차가 들어 오고 있었다. 아들은 어리지만 아버지의 일을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에게 소리쳐 외치지만 작업장의 소음으로 아버지는 듣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았다. 맘이 급해진 아이는 자기가 다리를 닫아 보려고 손잡이를 움직여보다 미끄러져 물에 빠진다. 기차가 들어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와 아들을 찾으니 안 보이고 기차는 다가오고… 아버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심한 갈등을 겪는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님 저 열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가? 가슴을 뜯으며 아버지는 손잡이를 내리고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아들은 다리에 칼려 온 몸이 부셔져 버릴 텐데…

이런 고뇌도 모른 채 무심히, 무사히 열차는 지나가고 정신이 나간 아버지는 올부짖으며 기차를 바라본다. 그 기차엔 온갖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외로운 사람, 화가 난 사람, 이기주의자, 상처 받은 이, 사랑에 들떠 있는 이, 마약 중독자, 의미 없는 삶에 지쳐 있는 사람 등등.

정말 그 아버지에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 같은 외아들을 내어 준 것이다. 그런데 열차의 창문을 통해 올부짖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다. 마약에 찌들어 기차 안에서도 라이터로 마약을 덙히던 아가씨… 그녀는 그 올부짖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떨어뜨리고 만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건널목 길에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서 있다가 건너편에 서 있는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픈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 젊은 엄마는 길을 건너 아버지 앞에 다가가 그 아기를 보여주고 지나간다. 열차에서 마약을 하려던 그 여자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슬픔에 젖어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난다.

짧은 영화이지만 어떤 영화보다도 나에겐 감동이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아이를 나와는 상관이 없고 바꿀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처럼 비천한 자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신 것이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생 모집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 모습을 보여 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 되었던 김명신 권사님의 교육 신념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 및 자녀
- 2018년 6월 고교 졸업 예정자 이상(대학/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 미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우수 인재

선발 인원: 3명 내외

지원 사항: 장학금 - 일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4/1/2018 ~ 5/20/2018

신청 방법:

아래로 이메일을 주시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Joon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Email: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C. 201-759-5688
- Soo Jin Lee: Dire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Email: sjlee0124@gmail.com
C. 201-658-4537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수여:

• 최종 선발 결과 발표: 6/8/2018

• 장학금 수여: 6/16/2018

창립 19주년 기념 선한 이웃 자선 음악회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김 순희 권사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Rochelle Park/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선교회 소식

- ◆ 2018-2019년도 선한 이웃 양상불 신입 단원 선발 오디션이 있습니다.
 - 일시: 4월 23일(월), 4월 30일(월) 6PM ~ 7:20PM
 - 대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룻
 - 장소: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52 Paramus Rd., Paramus)
 - 문의: 이수진(201-658-4547, sjlee0124@gmail.com)
- ◆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금(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application을 4월 1일부터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6월 16일(토) 7:30 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6 Monroe St., Ridgewood, NJ)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11월, 12월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연주를 해 주신 김유식 집사님(Cello)에게 감사드립니다.
- ◆ 12월 12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Rev. Caleb Cho에게 감사드립니다.
- ◆ 12월 19일 한소망 요양원에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신 뉴저지 장로 교회 강용승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1월 18일 Oakland 양로원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안현수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1월 24일, 1월 31일 Sunrise of Paramus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오대석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2월 28일 Buckingham Norwood 2층 양로원에서 아름다운 플룻 연주를 해 주신 Min Park 선생님과 양상불에게 감사드립니다.
- ◆ 3월 9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이현수 선교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19일 신년 예배에 도움을 주신 분들】

경배와 찬양-박지우 목사(컴백 교회)/말씀과 축도-송재현 목사(뉴저지 주사랑 교회)/반주-한자경 집사/특별 찬양 연주-김유식 집사(첼로), 박지우 목사(기타)/식사, 선물 제공-선한 이웃 선교회 이사회/과일 제공-서연희 권사, 정구임 권사/장소 제공-베다니 교회

선교 회원 동정

- ❖ 장례: Maya Lee의 아버님 김종환 집사님께서 2월 9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선교: 이문웅 장로/이명옥 권사-2/9 ~ 2/16, 코스타리카
- ❖ 이주: 김미경 집사 가정-Atlanta, Georgia로 이사

후원해 주신 분들(2017년 12월 ~ 2018년 1월, 2월)

임미영, 김학영, 서연희, 김윤수, 김애자, 윤희주,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수입: \$6,400.00

지출: \$7,799.05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한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양상불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윤희주 집사(시어머님 어깨 수술), 김주현 집사(부군 어깨 수술), Eunice Kim(발목 골절상 회복), 최성아 집사(녹내장), 김학영 권사 (어지럼증), 김진옥 집사(모친),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Jeannie Hwang(부친 & 모친), Sean Lee(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Jane(암 투병/Nicole Oh 전도사 친구), Benny De Marco(건강),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Jaebum Kim/Debora H Kim, 정구임
수입: \$175

총수입: \$20,600

총지출: \$9,000(장학금 수여)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 선생/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김금화 집사,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Susana Kim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김금화 집사,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암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불 단원 동정

1. Bergen County Band:
Grace Kim(Fl.), Chloe Nam(Fl.)
2. Region Band: Abigail Lim(Fl.)
3. Region Orchestra: Heesoo Bok(Vn.), Sebin Bok(Vn.), Julia Jeong(Vn.), Jiin Jung(Vn.), Jooun Lee(Vn.), Justin Lee(Vn.), Paul Jeong(Vn.), Jodie Suh(Va.), Karen Jo(Vc.), Joseph Lee(Vc.)
4.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The Young Musicians Concert at Alice Tully Hall:
Daniel Seog, Eilene Lee
5. Christy Chang:
American Protégé Concerto competition 1st Prize,
East Coast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st Prize
6. Julia Jeong(Vn): NY Concert Festival Grand Prix
7. Lindsey Jung(Vn.): National Artists Competition 2nd Prize
8. Grace Kim(Fl.):
Elit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st Prize
9. Eilene Lee: Young Artist Concerto Competition Livingston Symphony Orchestra 1st Prize
10. Peter Park(Vc.): NYYS Chamber Music Program(2017 fall~)
11. Daniel Seog: CAI Competition Ensemble 1st Prize(trio Astra)

양상불 신입 단원 오디션

- 일시: 4월 23일(월), 4월 30일(월) 6PM ~ 7:20PM
- 대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룻
- 장소: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52 Paramus Rd., Paramus)
- 문의: 이수진(201-658-4537, sjlee0124@gmail.com)

양상불 특별 활동 행사 일정

3월 18일(일) 10:45 AM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3월 24일(토) 2:00 PM	Brookdale Emerson
3월 31일(토) 2:00 PM	Oakland Rehab. & Healthcare Center
4월 14일(토) 2:00 PM	Oradell Health Care Center
4월 15일(일) 11:00 AM	Sunrise of Old Tappan
4월 28일(토) 2:00 PM	Tenafly County Manor
5월 12일(토) 2:00 PM	Buckingham at Norwood
5월 13일(일) 11:00 AM	Sunrise of Paramus
5월 19일(토) 2:00 PM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Englewood
6월 02일(토) 2:00 PM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18년 6월 16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